

카타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1천 km ²	G D P	2,001억 달러 (2014년)
인구	227만 명 (2014년)	1인당 GDP	88,230달러 (2014년)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통화단위	Qatar Riyal (Q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64 (2014년)

-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카타르는 페르시아만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함. 파키스탄과 인도로부터 온 이주민이 많고 수니파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 등 타 종교를 인정함.
- 인구 2백만, 한반도의 1/20 크기의 작은 나라이지만, 자원부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세계 3위로 경제부국에 속함.
- 카타르는 절대왕정 국가로 19세기 중반 이후 Al Thani 가문이 국왕직을 승계해 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높은 삶의 질로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에너지 부문의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 카타르 경제는 2002년 이후 원유생산량 증대와 천연가스 산업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 2005~10년 중 평균 16%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 하였음.
- 2014년에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의 와중에도 인프라 개발 및 비석유 부문에의 투자로 전년과 거의 같은 6.0%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5년에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 지속에 따른 수출 감소로 5.4%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카타르 경제의 향후 성장은 당분간 FIFA 월드컵 준비를 포함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에 의존할 전망이다.

□ 천연가스·원유 국제가격의 하락세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2014년 7월부터 급속히 진행된 천연가스와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15.6%) 대비 현저히 하락한 9.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천연가스와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는 금년 상반기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카타르의 201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5%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카타르는 균형재정 유가가 배럴당 약 55달러로 OPEC 회원국들 중 쿠웨이트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유가하락의 영향이 덜한 편임.
-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카타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달하던 2012~13년에도 석유 수출가격을 배럴당 65달러로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가하락에 대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상승세 유지 전망

- 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을 비롯한 주요 재화의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3.1%)과 거의 동일한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초과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 호조와 내수소비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a	2015 ^f
경 제 성 장 률	13.0	6.0	6.3	6.0	5.4
재 정 수 지 / G D P	7.6	11.2	15.6	9.2	-1.5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1.9	1.9	3.1	3.0	3.7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석유·천연가스 산업이 GDP의 50%,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의존적 경제구조로, 경제성장이 원유·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과 생산량 추이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카타르는 2006년부터 세계 1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7,700만 톤의 LNG 생산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비석유 제조업에서도 LNG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 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

- 카타르는 한반도 면적의 5.2%인 11,571km²의 영토를 지닌 걸프 지역의 소국(小國)으로, 2013년 확인매장량 기준 251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1.5%, 세계 13위)와 24.7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13.3%, 세계 3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임.

다. 정책성과

□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장기적 국가개발목표 추진

- 카타르 개발기획처(GSDP)는 2008년 10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 “국가 비전 2030”은 ①현대화와 전통 보존, ②관리 성장과 자유로운 확장, ③환경을 생각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④노동력 개발과 노동시장 균형 유지, ⑤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의 욕구 충족 등 5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①인적자원 개발, ②사회 개발, ③경제개발, ④환경개발 등 4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 카타르 정부는 “국가 비전 2030”과 2022년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발맞추어, 향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임. 중동 건설 전문지 MEED는 이 중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금년 중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원유 및 천연가스 국제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카타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 고조와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어,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Qatar Petroleum과 석유메이저 Royal Dutch Shell은 지난 1월 14일 65억 달러 규모의 Al- Karaana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표 2> “국가 비전 2030”의 주요 추진사업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신도시	• Lusail 신도시 건설(450억 달러)
교통/물류	• 철도망 건설(400억 달러) - 금년 중 발주 예정 : 수도 도하의 지하철망(4개 노선)과 400km 연장의 장거리 철도망 건설(150억 달러) • 도로 및 교량 건설(200억 달러) - 금년 중 발주 예정 : “Sharq Crossing” 프로젝트(60억 달러) • 항만·공항 확장(110억 달러) - 금년 중 발주 예정 : Hamad 국제공항 확장(30억 달러)
에너지	• 수·전력 확충(220억 달러)
환경	• 일반도로 및 하수처리시설(140억 달러)
관광/월드컵	• 호텔 건설(150억 달러) • 경기장 건설(40억 달러)

□ IT, 헬스케어 등 전방위적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 카타르 정부는 “국가 비전 2030”에 따른 산업다각화를 위해 특히 I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의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IT 분야에서는 ‘국가 ICT 계획 2015’를 수립하고 ICT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2011년 설립된 국영 광대역통신망회사(QNBN)를 통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국영 통신회사(Ooredoo)는 Microsoft社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카타르재단(QF)도 조인트벤처 IT 기업인 MEEZA를 설립하여 카타르의 주요 은행들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 부문에서는 QF의 주도로 79억 달러를 투자하여 Sidra 의학연구센터(SMRC)를 설립 중임. 카타르는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2014년의 34개에서 2015년 말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QF가 독일의 Solar World와 합작으로 카타르 솔라 테크놀로지(QSTec)를 설립하는 한편, Chevron Qatar 등과 합작으로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대형 태양광 테스트 시설을 설치하였음.

□ 특별경제지역(SEZ)의 조성 및 운영 추진

- 현재 카타르 정부는 Doha Industrial Estate, Mesaieed Industrial City, Dukhan Petroleum City, Ras Laffan Industrial City 등의 산업단지들을 운영하고 있음.
- 카타르 정부는 비석유 부문 활성화를 위해 기업환경 향상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공업, 중소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3개 특별경제지역(SEZ)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SEZ의 조성 및 운영을 전담할 국영기업 Manateq을 설립하고 50억 카타르리얌(약 14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음.
- 2014년 11월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Ras Bufontas SEZ (면적 4km² 규모)는 카타르의 물류 허브로 기획되었음. Hamad 국제공항에 인접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망과 연결될 예정이며, 3단계에 걸친 조성공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lhouf SEZ(면적 33.5km² 규모), 도하와 카타르 북부의 Abu Samra 사이에 건설될 Al Karaana SEZ(면적 38.4km² 규모)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축소로 인해 위축되었으나, 외환보유고는 증가세 지속 전망

- 카타르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2014년 7월 이후 급속히 하락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2014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30.8%) 대비 대폭 하락한 17.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도 원유, 천연가스 및 LNG의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수출액 감소,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및 용역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의 1/3 수준인 5.9%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a	2015 ^b
경 상 수 지	51,978	62,031	62,587	35,631	11,760
경 상 수 지 / G D P	30.6	32.6	30.8	17.8	5.9
상 품 수 지	87,373	102,198	105,462	80,279	59,396
수 출	114,299	132,985	136,937	118,506	99,606
수 입	26,926	30,787	31,475	38,228	40,211
외 환 보 유 액	15,641	31,957	41,022	43,959	46,435
총 외 채 잔 액	130,499	161,500	167,600	161,683	157,239
총 외 채 잔 액 / G D P	76.1	83.9	82.7	75.6	69.8
D S R	5.2	5.3	6.5	6.8	7.5

자료: IMF, EIU, OECD.

-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증가에 따른 이들의 해외송금 증가 등도 향후 경상수지 흑자 위축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의 운용과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4년 말 44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Tamim 국왕의 정치적 기반 강화로 정치안정 유지

- 2013년 6월 Hamad 前국왕의 돌연한 양위 발표에 이어 Tamim 왕세자가 새 국왕으로 즉위하고, 신규 내각을 구성하여 단기간 내에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 Tamim 국왕은 아버지 Hamad 前국왕의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카타르의 정치적 안정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Tamim 국왕은 총리가 카타르 국부펀드(QIA)의 CEO를 겸임하고 에너지부장관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Qatar Petroleum)의 CEO를 겸임하던 관례를 종식시켜, QIA와 Qatar Petroleum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GCC 최초의 성문헌법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추진 중

- Hamad 前국왕은 1995년 아버지 Khalifa 前국왕의 해외체류 중 무혈 궁정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뒤, 시민의 국정참여 확대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점진적 정치 개방을 선도해 왔음.
- 이러한 개혁의 결과, 2003년 GCC 회원국으로는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 하였음. 2005년 6월 발효된 이 헌법은 정당활동과 완전한 의회기능을 보장 하지 않지만 3권 분립의 토대가 되었으며,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는 자문위원회(Majlis al Shura)가 의회의 역할을 하게 됨.
 - 아울러 이전까지 별도로 유지되던 종교법원을 일반법원에 편입시키는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2013년 하반기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첫 총선을 실시할 계획 이었으나, 이후 왕권 교체와 주변 정세의 불안에 따라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 헌법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총 45개 의석 중 30석은 총선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15석은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립외교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로 사회적 안정 유지

- 카타르는 ‘중동의 스위스’를 표방하며 중립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를 통해 각종 테러가 빈번한 중동 지역에서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음.
 - 카타르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로서 아랍 각국의 이슬람주의 세력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회·성당의 운영도 허용하고 있음.

□ 높은 국민소득과 풍부한 복지혜택으로 불안요인 미미

- 2011년 “아랍의 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카타르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등 사회불안 요인은 미미함.
- 풍부한 오일머니의 축적으로 1인당 GDP와 복지혜택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014년 카타르의 1인당 GDP는 88,230달러로 추정되어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동 지역 국가들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임.

3. 대외관계

□ 다각적·독자적 실용주의 외교노선 유지

- 카타르는 GCC 회원국 및 아랍 국가들과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막대한 국부(國富)를 바탕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 국가 실리를 우선시하는 다각적·독자적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유지하여 중동 정세 변화의 핵심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 GCC 회원국 공통의 우방인 미국과는 군사·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Al Udeid 공군기지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시설이 카타르 내에 위치해 있음.
- 그러나 카타르는 미국은 물론 GCC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적대 관계인 이란과 GC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카타르의 최대 소득원인 수출용 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선박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해야 하는 입장임.
- 카타르는 반미 무장단체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와도 그 외교적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카타르는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탈레반 간의 미군 병사 석방 교섭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휴전 교섭을 중재하여 성사시키는 등 중동 외교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 아울러 수도인 도하에 이스라엘의 외교 업무용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하마스와 적대관계인 이스라엘과도 반(半)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 등 여타 GCC 회원국들과의 갈등 잠재

- 카타르는 2011년 이집트의 Mubarak 대통령이 하야한 뒤 집권한 Morsi 대통령과 그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쿠데타에 의한 Morsi 대통령 축출 이후 무슬림형제단을 탄압하고 이집트 군부를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갈등을 빚었음.
- 이슬람주의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카타르의 중립 외교노선, 걸프 왕정 국가들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Al Jazeera 방송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누적된 불만도 카타르와 여타 GCC 회원국간의 갈등을 증폭시켰음.
- 결국 2013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3개국이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2014년 11월 해당 국가의 대사들은 카타르로 귀임하였으나, 카타르와 이들 국가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잠재해 있는 상황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큰 총외채 비중 대비 낮은 외채상환위험 가능성

- 2014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75.6%로 추정되어 GCC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2008년 이후 천연가스 개발과 LNG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이 본격화된 데 기인함.

- 그러나 단기외채규모는 총수출액의 12.9%에 불과하며, D.S.R.도 6.8%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안정적인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의 조사에 의하면, 카타르투자청(QIA)이 운용 중인 국부펀드의 규모는 약 2,560억 달러로 추정됨.
- 2014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3.9억 달러, 중장기 94.5억 달러 등 총 98.4억 달러이며, 이중 30만 달러가 연체 중이나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3등급, S&P AA, Moody's Aa2 등급으로 양호한 평가 유지

- OECD는 카타르에 대하여 2012년 1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한편 S&P는 AA 등급, Moody's는 Aa2 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양호한 평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5. 1)	3등급 (2014. 1)
S&P	AA (2010. 7)	AA- (2007. 3)
Moody's	Aa2 (2007. 7)	Aa3 (2006.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4년 4월 18일 (북한과는 1993년 1월 11일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1984), 문화협력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99), 항공협정(2009), 이중과세방지협정(2009), 치안협력협정(2010), 고위급전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2012), 군사협력협정(2014)

□ 2014년 대 카타르 교역규모는 266.3억 달러 기록

- 2014년 대 카타르 교역규모는 266.3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전선, 특수 선박 등을 중심으로 9.0억 달러(전년대비 6.2% 증가),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를 중심으로 257.3억 달러(전년대비 0.6% 감소)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카타르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730	852	905	자동차, 전선, 특수선박
수 입	25,505	25,874	25,728	천연가스,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건설시장

- 2014년 말 우리 기업의 대 카타르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185.4억 달러로, 카타르는 우리나라 제8위의 해외건설시장임.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93.2억 달러, 토목이 67.0억 달러, 건축이 18.4억 달러 등임.
- 2014년에는 16.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 중 토목이 13.6억 달러, 산업설비가 1.9억 달러를 차지하였음.
- 2012년부터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이 토목에서 발생하여, 여타 GCC 국가에서의 수주가 산업설비에 집중된 점과 차별화됨. 향후 대규모 토목·건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국내 기업의 진출이 지속될 전망임.

□ 해외직접투자(2014년 12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 75건, 6,097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카타르 투자는 2009년에 연중 투자금액 2,180만 달러로 집계 이후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업종별로는 건설업(투자누계액의 77.5%)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V. 종합 의견

- 카타르는 자원부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고속 성장을 이어왔으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프라 개발 및 비석유 부문에의 투자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축소로 그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부펀드의 운용과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Tamim 국왕은 즉위 이후, 신규 내각 구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Hamad 前국왕의 점진적인 개혁을 이어나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다각적·독자적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동외교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타 GCC 국가들과는 잠재적 갈등으로 작용함.
- 천연가스 개발과 LNG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부펀드 규모는 약 2,560억 달러로 파악되며, 단기외채 규모는 총수출액의 12.9%이고 D.S.,R.도 6.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조사역 임민교(☎02-3779-5727)
E-mail : ymg@koreaexim.go.kr